

우선주 유상소각 결의 후 거래가격 급등에 대한 쌍용양회 입장

쌍용양회는 8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우선주 유상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를 결의했고, 오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금번 우선주 유상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추진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자본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쌍용양회는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쌍용양회의 우선주는 전날보다 30% 가깝게 급등한 18,900 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9월 2일 오전 10시 현재 24,550 원) 쌍용양회는 이 같은 우선주의 주가 왜곡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투자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쌍용양회 우선주의 주식 수는 304,596 주입니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시장에 거래되는 우선주 1,543,685 주 전량에 대해 주당 15,500 원에 공개 매입을 추진한 결과, 80.3%인 1,239,089 주의 우선주가 매수에 응하였고, 최종적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고 남은 주식 수입니다.

우선주는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6개월 동안 월 평균 1만주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또 동일한 상황이 6개월 더 계속된다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가 적어 외부세력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는 최대주주 우선주 공개매수 직전인 5월 29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과거 2개월, 1개월, 1주간 종가를 거래량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주당 9,297 원에 유상소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소각 기준가격은 쌍용양회가 외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쌍용양회 우선주는 아무리 가격이 급등한다 할지라도,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유상소각 기준일(11월 16일)에 9,297 원으로 최종 강제 소각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주주인 한앤코시멘트홀딩스는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존 우선주주의 손실방지를 위해 종전 공개 매입 가격인 15,500 원에 장내 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기준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는 현재의 우선주 가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쌍용양회 우선주 투자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양회는 앞으로도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